

5여선교회 월례회 소식



5여선교회는 6월 월례회를 8일(수) 오전 10시에 청년부 2실에서 가졌다. 회원들은 함께 모여 입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진심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담당교역자인 박의일 목사는 마태복음 22:34~40절을 통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

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말이 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쇠는 나의 말과 눈빛과 행동 모두에 오직 '사랑'만을 유일한 동기로 삼는 것이다.

5여선교회는 경건회 이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중보기도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 우리교회 각 기관과 교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5여선교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장애우들의 거처인 김포 '살롬의 집'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4부 '오늘' 예배를 알리기 위한 노방전도이다.

이 노방전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오늘 기도



다시 사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모임

이번주 목요일에도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수전도단 목요모임이 있었다.

이번 주일에는 예수전도단 대표이며 우리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날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도망가 '벤엘' (하나님의 집)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하여 약속의 말씀처럼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될 것과 벤엘이 주의 전이 될 것과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그는 그 후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삼촌 라반과 에서로부터 평탄하게 지켜주신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숙곳'에 집을 지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뒤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이름지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안할 줄 알았던 이곳에서 야곱은 가정적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된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사건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야곱이 왜 세월에 멈춰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야곱은 '벤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야곱은 서원을 드렸다. 그러나 벤엘이 아닌 숙곳에 야곱은 눌러 앉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처럼 '벤엘'에 머물기를 원하셨다. 멈추지 않아야 할 곳에 멈추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곳을 떠나게 만드신다.

야곱에게 벤엘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벤엘로 올라가라, 벤엘까지 가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맨 처음 한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했다.

더럽혀진 모든 것을 깨끗이 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장소인 벤엘로 올라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집, 약속이 있는 곳, 거기까지 가길 원하신다.

정신여중 체육대회 기간 솜사탕으로 전도해

지난 6월 3일(금) 정신여중에서는 체육 대회가 있었다. 체육 대회 한 귀퉁이에 낮익은 물건을 발견했다. 지난 달 '무지개 축제'에 사용되었던 솜사탕 기계가 바로 그 것이다. 중등부에서 학교 전도의 일환으로 체육 대회 때 솜사탕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

졌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앞뒤로 빼곡히 적힌 막대기에 솜사탕을 받아든 아이들의 표정은 솜사탕만큼이나 환했고, 간간히 믿는 친구들과 함께한 찬양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체육대회를 통한 학교 전도는 올 들어 두 번째. 앞서 풍성중학교에서는 풍성중학교에 자녀를 둔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먹거리 장터를 도왔고,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들이 솜사탕을 만들어 나누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감사를 전했다는 훈훈한 후문도 들려온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간단한 간식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정신여고, 영파여고,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 학교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중등부 역시 곧 점심시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활발해진 학원 선교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꿈을 그려본다. 많은 교인들이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한다.

6월 26일은 교회 창립기념 주일

지난 주일 임직식 준비 모임 가져



올해 창립 기념주일은 6월 26일 주일이다.

이 날 3부 예배 때는 정규 창 장로와 양동훈 장로

의 은퇴식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이 날 작년에 피택된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일(5일)에는 김성관 목사 주관으로 임직자 임직식 준비를 위한 예비 모임을 가졌다.

피택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에 관한 리허설은 25일(토)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모든 임직 예정자와 당회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6여선교회 월례회 소식



6여선교회 상반기 마지막 모임은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으로 시작했다.

예상보다 단출하게 모였지만 어느

때 보다 깊이 있게 예배드리고 진솔한 삶을 나누었다. 담당 교역자인 나현수 전도사가 준비한 말씀은 시편 51편1~7절과 12~13절, 다윗의 회개였다. 본문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기반위에서 참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의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곧 죄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나현수 전도사는 시편 본문을 영어와 한글로 함께 만들어 와 말씀 묵상과 함께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다. 6여선교회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 교회 5층 청년부 2실에서 모이며 매달 둘째주 월요일에는 마

천동 소재 '소망의 집'으로 장애우를 위한 목욕 봉사를 나간다. 66년 이후 출생한 여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연락처: 011-294-9290).

여호수아반 양육 클래스 소개

여호수아반은 오는 16일, 23일 목요일 두주에 걸쳐 '가정' 특별히 조상세대와 나,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깊이있는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담지자, 축복의 통로, 안식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이 알게 모르게 정서적,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번 두주에 걸친 영적 전쟁 강의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의 영적 원인 규명과 그 원인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양육 클래스지만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청강이 가능하다.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아름답게 열려



제1남선교회가 주최하고 공흥사역위원회가 후원하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가 지난 수요일(8일), 저녁 7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많은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모테트 합창단과 기타리스트 장승호, 소마트리오의 깊고 아름다운 성가곡 연주가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을 울렸다. 서울모테트 합창단은 멘델스존과 베토벤, 헨델, 하이든의 주옥같은 성가곡들을 특유의 깊고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불렀고,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장승호씨의 섬세한 기타 연주가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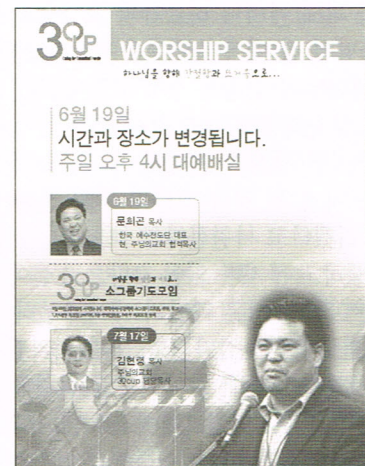
그리고 3명의 교수로 구성된 소마트리오의 찬송가를 재즈로 편곡한 연주곡과 다른 2곡의 피아노 3중주는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자선음악회에는 교회 성도인 박치용 지휘자, 테너 이단열, 소프라노 한나숙, 반주 정선인, 오르간 연주자 송은혜가 함께 출연했다. 이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귀한 성금 8,445,800원은 우리주변의 결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랑의 통로로 귀하게 쓰일 예정이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30CUP WORSHIP SERVICE 시간/장소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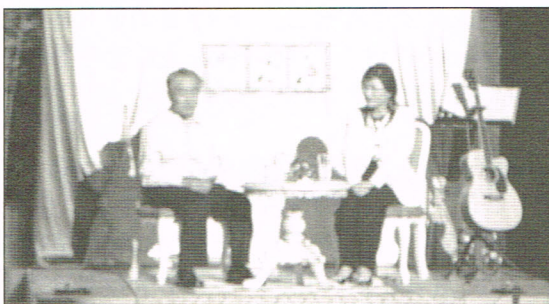
매월 셋째 주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드려졌던 30대 예배가 같은 주일 4시 대예배실로(본당)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어 드려지게 된다. 아울러 소그룹 기도모임은 5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3층 초등부실로 장소를 변경해서 갖게 된다.

6월 모임은 19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갖게 된다

강사로는 문희곤 목사(예수전도단 대표, 주님의교회 협력 목사)가 초대되며, 신앙의 삶은 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도전하게 될 것이다.



4부 '오늘' 예배 지난 주일 두번째 시간 가져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지난 주일 4부 예배 때는 황경숙 집사(가수)를 초대했다. 그의 멋진 노래를 들은 뒤 문동학 담임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시간을 가졌다.

인생을 살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마흔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였다고 대답했다. 황경숙 집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심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두운 시간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 죽을 결심을 하고 친구와 술을 마실 때 어떤 가수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축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갔고 주일날 한 번 참석한다는 것이

그의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눈물이 계속 흐르며 찬양가사가 다 자신의 마음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3일 동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아픈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앓고 나서 담배를 입에 무는 순간 신기하게도 역겨움으로 구역질이 나 그 뒤부터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니 돈이 없어 기뻐하고, 미운 사람도 마음이 변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하게 보였다고 한다. 물질이 없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볼 때, 믿음은 두둑한 배짱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60-70년대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지금도 비슷하며 그 이유는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의 허무함을 생각하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이라는 곡을 요청했다. 즉석에서 황경숙 집사는 그 곡을 문동학 목사와 함께 열창했다. 문동학 목사는

변화된 바보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질문했다.

바보처럼, 5월 13일 가요무대를 녹화하면서 가요계를 떠났다고 한다. 돈을 계속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놓게 해주셨고 가요를 놓았을 때 너무 너무 행복했다고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가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리로 자신에게는 너무 뜻 깊고 귀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경숙 집사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을 부르며 퇴장했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자유의지는 좋은 것, 나쁜 것 모두를 할 수 있는 자유이다. (4면에서 계속)



5여선교회 월례회 소식



5여선교회는 6월 월례회를 8일(수) 오전 10시에 청년부 2실에서 가졌다.

회원들은 함께 모여 입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진심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담당교역자인 박의일 목사는 마태복음 22:34~40절을 통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

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말이 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쇠는 나의 말과 눈빛과 행동 모두에 오직 '사랑'만을 유일한 동기로 삼는 것이다.

5여선교회는 경건회 이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중보기도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 우리교회 각 기관과 교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5여선교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장애우들의 거처인 김포 '살롬의 집'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노방전도를 계획하고있다.

4부 '오늘' 예배를 알리기 위한 노방전도이다. 이 노방전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오늘 기도



목요모임

이번주 목요일에도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수전도단 목요모임이 있었다.

이번 주일에는 예수전도단 대표이며 우리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 날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도망가 '벤엘' (하나님의 집)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서원하여 약속의 말씀처럼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될 것과 벤엘이 주의 전이 될 것과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그는 그 후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삼촌 라반과 에서로부터 평탄하게 지켜주신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숙곳'에 집을 지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뒤 '엘엘로헤이스라엘' 이라고 이름지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안할 줄 알았던 이곳에서 야곱은 가정적으로 큰 환란을 겪게 된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사건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야곱이 왜 세겜에 멈춰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야곱은 '벤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야곱은 서원을 드렸다. 그러나 벤엘이 아닌 숙곳에 야곱은 눌러 앉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처럼 '벤엘'에 머물기를 원하셨다. 멈추지 않아야 할 곳에 멈추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곳을 떠나게 만드신다.

야곱에게 벤엘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벤엘로 올라가라, 벤엘까지 가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맨 처음 한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했다.

더럽혀진 모든 것을 깨끗이 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장소인 벤엘로 올라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집, 약속이 있는 곳, 거기까지 가길 원하신다.

정신여중 체육대회 기간 숨사탕으로 전도해

지난 6월 3일(금) 정신여중에서는 체육 대회가 있었다. 체육 대회 한 귀퉁이에 낮익은 물건을 발견했다. 지난 달 '무지개 축제'에 사용되었던 숨사탕 기계가 바로 그 것이다. 중등부에서 학교 전도의 일환으로 체육 대회 때 숨사탕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

졌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앞뒤로 빼곡히 적힌 막대기에 숨사탕을 받아든 아이들의 표정은 숨사탕만큼이나 환했고, 간간히 믿는 친구들과 함께한 찬양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체육대회를 통한 학교 전도는 올 들어 두 번째. 앞서 풍성중학교에서는 풍성중학교에 자녀를 둔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먹거리 장터를 도왔고,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들이 숨사탕을 만들어 나누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감사를 전했다는 훈훈한 후문도 들려온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간단한 간식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정신여고, 영파여고,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 학교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중등부 역시 곧 점심시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활발해진 학원 선교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꿈을 그려본다. 많은 교인들이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한다.



6월 26일은 교회 창립기념 주일

지난 주일 임직식 준비 모임 가져



올해 창립기념주일은 6월 26일 주일이다.

이 날 3부 예배때는 정규창 장로와 양동훈 장로

의 은퇴식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이 날 작년에 피택된 안수집사와 권사의 임직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일(5일)에는 김성관 목사 주관으로 임직자 임직식 준비를 위한 예비 모임을 가졌다.

피택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에 관한 리허설은 25일(토)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모든 임직 예정자와 당회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6여선교회 월례회 소식



6여선교회 상반기 마지막 모임은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으로 시작했다. 예상보다 단출하게 모였지만 어느

때 보다 깊이 있게 예배드리고 진솔한 삶을 나누었다. 담당 교역자인 나현수 전도사가 준비한 말씀은 시편 51편1~7절과 12~13절, 다윗의 회개였다. 본문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기반위에서 참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의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곧 죄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나현수 전도사는 시편 본문을 영어와 한글로 함께 만들어 와 말씀 묵상과 함께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다. 6여선교회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 교회 5층 청년부 2실에서 모이며 매달 둘째주 월요일에는 마

천동 소재 '소망의 집'으로 장애우를 위한 목욕 봉사를 나간다. 66년 이후 출생한 여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연락처: 011-294-9290).

여호수아반 양육 클래스 소개

여호수아반은 오는 16일, 23일 목요일 두주에 걸쳐 '가장' 특별히 조상선대와 나,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깊이있는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의 담지자, 축복의 통로, 안식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이 알게 모르게 정서적,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번 에 두주에 걸친 영적 전쟁 강의에서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의 영적 원인 규명과 그 원인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양육 클래스지만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청강이 가능하다.

양육클래스 “화평과 겸” 소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층 초등부실에서 이호목사의 “화평과 겸” 양육클래스가 열리고 있다.

매시간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듣지 못한 성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주 강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호목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사랑하는 형제자

매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께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교회에 참여하는 일꾼들의 특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되었다고 말했다.

성령 충만한 찬양과 이호목사의 열정적이며 따뜻한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 매주 은혜로운 수업시간이 열리고 있는 “화평과 겸” 클래스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PTP 자녀교육세미나

어제 토요일(11일)에는 PTP(학부모/교사기도회)에서 주최한 자녀교육세미나 첫째 강의가 있었다. 첫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홍민기 목사의 강의가 있었다. 가치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며 양육하는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에 모두 함께 모인 학부모들이 동의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PTP는 매주 200여명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으로 어제와 다음주 토요일에는 특별

히 자녀교육세미나를 갖는다.

다음주에는 “바른혼계가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계속된다. 그리고 여름의 바쁜 교육부 성경학교 및 수련회 사역을 위해 전교사 기도회가 19일 주일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게 된다. 이번 여름 교육부의 각종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와나

어와나클럽

전국 어와나게임즈에 출전하여 동메달 획득해



6월 6일(월)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 2학년 을 주축으로 선발된 단원들(한유안, 나혜수, 최혜령, 조혜은, 최정수, 조유라, 문용준, 박지성, 문예준, 권도형, 이은채, 정유진, 이해동, 안우석, 송현서, 김성도, 최찬우)이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함께 아침 일찍 교회로 모였다.

대형버스에 오르고 정희성 목사의 기도와 함께 평택으로 출발하였다.

정성스레 준비한 간식을 함께 나누며 유쾌한 출발을 하였다. 6개의 게임 트랙 중에서 주님

의교회 불티단은 3트랙의 과랑반으로 결정되어 일산동안교회, 남부전원교회, 할렐루야교회와 한조가 되어 게임을 하게 되었다. 막상 게임이 시작되고 보니 단원들은 마음이 앞서 반칙이 자주 나오고 썩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다. 함께 했던 교사들과 학부모들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오전 경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단원들과 리더들이 모여 오전 경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며 재정비를 했는데 그 결과 오후 경기에서는 어와나 불티단 단원들이 향상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리더들과 함께 했던 학부모들도 뜨거운 성원과 응원으로 최선을 다해 주었다.

주님의교회 어와나 단원들이 최선을 다해 동메달을 받아 매우 자랑스럽다. 동메달을 하나씩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리더들과 학부모들도 마지막까지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하였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응원해 주고 격려해준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또한 단원들을 위해 여러가지 세심한 준비를 해준 어와나 클럽 불티 1,2반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올해 어와나게임즈에 처음 출전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어와나 단원들이 더욱 협력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되도록 잘 지도하는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 드린다.

30CUP 이야기

지난 4월 17일, 주님의교회에 30대 사



역이 시작되었다. 직장파 결혼, 육아 등 삶의 다른 우선순위로 인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30대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건강한 교제의 장을 확장하기 위해 시작된

사역이다. 30대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첫째, 매주 3번째 주 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본당)에서 드려지는 30CUP WORSHIP SERVICE이다.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과 나 스스로에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또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일하는 크리스천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30CUP 찬양팀이 구성되어 기도와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4월에는 강지원 변호사, 지난 5월에는 이용수 교수가 강사로 초대되어 30대는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참여한 사람들을 도전했다. 6월 19일에는 예수전도단 대표며, 현 주님의교회 협력목사인 문희곤 목사가 초대되어 30대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소그룹기도 모임이다. 소그룹 기도모임은 매주 목요일(셋째 주 제외) 저녁 7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된다. 30CUP예배와는 형식을 달리하여 말씀을 토대로 구체적인 삶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기도모임은 김현령 목사의 예레미야 강해와 기도 인도로 진행된다. 직장인과 주부들은 물론 기도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 모임의 초대 대상이다.

30대 사역은 자원하는 20여명의 스태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성은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다. 사역팀들은 매달 1회 이상 팀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는다.

30CUP 소그룹 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셋째 주 제외) 저녁 7시 30분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30CUP 소그룹 기도모임이 열린다.

말씀에 적용된 구체적인 삶의 기도를 드리기를 위한 것이 기도모임의 목표이다. 모임은 찬양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생각하게 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소그룹기도모임의 특징은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나의 기도제목으로 삼아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면 실질적인 소그룹을 형성하여 함께 삶과 기도제목의 나눔에 적

극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강해는

30CUP사역의 김현령 목사가 맡고 있다.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하는 직장인들과 주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세레 입교 예식 이번주 수요일 저녁에 열릴 예정

지난 5주 동안 20여명의 세레 입교 신청자들이 소정의 교육을 열심히 받고 지난 주일에는 교육받은 사람들과 세레 사역팀과 교역자가 함께 세족식을 갖는 시간도 가지면서 세레와 입교 예식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늘은 오후 1시 반부터 문답을 받게 되며, 이번 주 수요일 수요일성경공부 시간에 세레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

세레 입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는 의미가 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레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증인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제1여선교회 월례회 소식

제1여선교회는 6월 7일(화) 오전 11시에 박경옥 권사의 예배 인도에 따라 예

배와 월례회 순서를 가졌다. 담당 교역자인 정영환 목사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1여선교회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해주기를 당부했고,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가졌던 애뜻한 마음을 회원들도 가슴에 새기면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더 많은 사랑을 교회에 부어주는 삶을 살길 부탁했다.

예배후에는 그 동안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그리고 1여선교회 봉사자인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휴양소인 진생도 교회 지원과 음식제공 및 그 동안 사업결과 보고를 함께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더 옥토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 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